

“반말·모욕적 표현하는 경찰 아직도 있어서야”

광주변호사들이 보는 요즘 경찰들

경찰개혁과 경·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전히 강압적인 태도와 중립성을 잊은 수사 등 구태에 빠진 경찰관들이 있다는 변호사들의 지적이 나왔다.

광주지방변호사회(이하 광주변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년 동안 광주지방변호사회 173명 회원들이 참여해 광주·전남의 일선 경찰관서에서 접한 경찰관들을 평가한 결과다. 지난해에는 853 명 경찰관에 대해 1522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평가 기준은 크게 청렴·공정, 친절·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광주변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법경찰

청렴·공정·법준수·직무능력 평가 등 '사법경찰평가' 결과 발표

일부 수사관 인격적 편견 드러내…사건 처리 지연에 불송치도

광주동부경찰·곡성경찰 '최하위'…26일 우수 경찰관 시상식

관 10명, 우수경찰관서 광주·전남 각 1곳, 하위경찰관서 광주·전남 각 1곳씩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광주동부경찰, 곡성경찰은 각각 77.1점, 74.5점을 받아 광주·전남 최하위 경찰관서로 접수했다. 이들의 평가 점수는 평균(80.0점)을 크게 밀돌았다.

광주변회는 일부 일선 경찰관들이 구태적인 수사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우선 폭언과 강압적 분위기 조성 등을 반복하

는 경찰관에 대한 평가가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

한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너 깨페잖아"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면서 인격적 편견을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언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말과 모욕적인 표현을 하며 피의자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에게 조사 시작 전부터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 나"고 으름장을 놓는 경찰관도 있었다.

피의자 가족을 공범으로 의심하면서 지속적으로 출석을 강요하면서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알려주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사과할 거나"고 물어오는 등 중립적이지 않은 수사를 한 정황도 있었다.

직무를 게을리 한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고소제기 후 2년 반 이상이 지나도록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는지 여부 등 수사 상황을 고소인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사관 기피신청을 무시하고 수사를 계속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사건을 반복 송치하는 경우, 조사를 마치고도 7개월 동안 이유 없이 시간을 소요하다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등도 잇따랐다고 한다.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 제출 서류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조사 일정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하거나, 예정됐던 조사일에 제대로 출석해도 수사관이 휴가를 갔다며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례도 있었다고 광주변회는 전했다.

광주변회 관계자는 "평가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편향적 태도와 인격적 편견이 드러난 행위, 고압적 분위기 조성, 고지의무 미준수, 객관적 증거 수집 소홀, 사건 처리 지연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관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변회는 오는 26일 평가 결과 우수사법경찰관으로 선정된 이들을 초청해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축구 열정 식지 않는다 매서운 한파에 폭설이 내린 21일 오후 광주시 남구 다목적 축구장에서 동호인들이 축구경기를 즐기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대장동 항소 포기' 선택적 반발 검사들 좌천됐다

법무부, 대검검사급 32명 인사

박현준·박영빈·유도윤·정수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대검검사급)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항의성 성명에 이름을 옮겼던 일선 지검 검사장들이 대거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

규 보임(7명), 전보(25명)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일자는 오는 27일이다.

인사 명단 중 '한자'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명단에는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 7명이 포함됐다.

이 중 박현준, 박영빈, 유도윤, 정수진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항의성 성명을 냈던 이들이다.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로 임명됐으며,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박규형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신임 검사장 명단도 공개됐다. 박진성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했으며, 흥안희 대구지검장 부부장검사(국무조정실 파견)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성희 서울동부지검장 차장검사는 대검 공판송무부장, 장영아 서울중앙지검장 2차장검사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유임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주말 눈… 다음주까지 강추위

여수·광양 등 건조특보

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지만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24일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5~0도, 낮 최고기온 2~5도에 머물겠고, 25일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7~영하 2도, 낮 최고기온 1~6도가 예상된다.

다음 주에도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5~1도, 최고 4~7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수와 광양 등 전남동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으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 북구 26일부터 신청사 업무

광주시 북구는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신관은 옛 북구선거관리위원회 부지(광주시 북구 용봉동 239-2)에 들어섰으며 현 북구청 광장을 기준으로 100여m 떨어져 있다.

북구는 총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7179m²(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신관 건물을 조성했다. 지난 2024년 6월 착공한 이후 1년 6개월여만에 완공됐다.

1층에는 구내식당과 카페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업무 시간 중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층부터 7층까지는 5개 국 17개 부서와 기록관, 재난안전상황실, 우수·산불 모니터링실, 다목적회의실 등이 배치됐다.

북구는 신관과 본관, 효죽1공영주차장 등 3곳으로 업무 공간을 재편해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26일 건축과 등 6개 부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888만원 '양복값 뇌물'

이상익 함평군수 항소심도 무죄

건설업자에게 '888만원' 고가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군수에게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89)씨에 대한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최초로 양복을 맞춘 시점은 A씨와 B씨가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 청탁을 하기 전의 일이므로, 당시 이 군수가 맞춤 양복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